지난해 11월 정기예적금 58조 늘었다

증가폭 역대 최고…통화량 27조3000억↑

수시입출식 19조원↓…역대 최대폭 감소

고금리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예·적금 규모가 58조 늘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반면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에선 역대 가장 많은 돈이 빠져나갔다. 시중 통화량은 27조원 불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22년 11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중 통화량(계절조정·평잔)은 광의통화(M2) 기준 3785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7조3000억원(0.7%) 증가했다.

시중 통화량은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5.4%로 2021년 12월(13.2%)을 정점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전년 대비로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째 한 자릿수 증가하고 있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금융 상품별로 보면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이 58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편제된 2001년 12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19조1000억원 줄어 역대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요구불예금 감소폭도 역대 1위로 13조8000억원 줄었다. 요구불예금은 지급을 원하면 언제든지 은행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초단기 예금으로 현금과 유사한 유동성을 지닌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정기예적금으로 자금이 옮겨갔다는 의미다.

경제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 통화량이 시장 금리 상승,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으로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14조1000억원 증가해 187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의 통화량은 3조8000억원 늘어난 1119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타금융기관은 지방교부금 유입의 영향으로 7조9000억원 늘어난 55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단기자금 지표인 M1은 1260조3000억원으로 현금통화와 결제성 예금이 모두 줄어들며 전월대비 34조4000억원(2.7%) 감소했다.

전년동월과 비교해선 6.8% 감소,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뉴시스

발행잔액 증가율 18년 만에 최저 예금 금리 상승과 코로나19 위험회피심리 완화 등으로 화폐발행잔액 증가율이 1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화폐발행잔액은 174조 8천622억 원으로 1년 전(167조5천718억 원) 대비 4.4% 증가하는데 그쳤다.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 지폐를 검수하고 있다. /뉴시스

주담대 금리 연초 8%대→7%대 중반으로

신규 코픽스, 11개월 만에 하락…전월比 0.05%p↓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내려갔다. 금리 산정의 지표로 쓰이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영향이다. 코픽스에 반영되는 예금금리, 금융채 금리가 내리면서 대출금리도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이날 기준 연 5.73~7.43%로 나타났다.

이날 우리은행의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연 6.36~7.36%로 전날 6.41~7.41%에서 0.05%포인트 내렸다. 국민은행은 연 5.78~7.48%에서 5.73~7.43%로, 농협은행도 연 6.03~7.13%에서 연 5.98~7.08%로 같은 폭만큼 하향 조정했다.

이들 은행은 전날 공시된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하락분을 반영해 대출금리를 내렸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2월 코픽스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4.29%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월 기준 코픽스 이후 11개월 만에 전월보다 내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신규 코픽스는 4.34%로 2010년 공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규 코픽스는 지난달 정기예금과 금융채 금리 등이 떨어지면서 하락 전환했다.

다만 앞서 나타났던 상승세에 비해 이번 하락폭은 크지 않다. 지난해 11월에는 전월 대비 0.36%포인트 오른 바 있다. 12월 신규 코픽스는 1년 전(1.69%)에 비해 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잔액 및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보다 올랐다. 기존 고금리 예적금 상품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규 코픽스가 잔액 기준·신잔액 기준 코픽스보다 시장금리 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시기 잔액 기준 코픽스는 3.52%로 전월 대비 0.33%포인트 상승했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2.92%로 전월보다 0.27%포인트 올랐다. 이에 국민은행의 신잔액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이날 기준 연 5.62~7.02%로 전날보다 올랐다.

광주국세청, 설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무등시장 상인들과 현장 간담회도…현장 소리 청취

광주국세청은 17일 설 명절을 맞아 자매결연 전통시장인 광주 남구 주월동 무등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윤영석 광주국세청장과 간부직원 등은 이날 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았다.

윤 청장 등은 무등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또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과 쌀, 간식 등 농산물을 구매했다.

/권형안 기자

포스코, 美달러화 채권 발행

역대 최대 20억 달러 규모

포스코가 2023년 국내기업 중 처음으로 실시한 해외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포스코는 지난 9일(현지시간) 美달러화 채권 발행에 나서 3년 만기 7억달러, 5년 만기 10억달러, 10년 만기 3억달러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억 달러규모 3개 트렌치 글로벌본드를 발행했다.

금리는 글로벌 대형 투자자들의 안전자산에 대한 탄탄한 수요를 기반으로 미국채 3년물은 +190bps, 5년 물은 +220bps, 10년 물은 +250bps의 유리한 가산금리로 발행된다.

포스코가 이번에 발행한 채권은 작년 12월 15일(현지시간) 美연준의 기준금리 50bps인상 단행 직후 글로벌 시장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국내 기업의 美달러화 공모채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발행에 성공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우량채권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

포스코는 작년 7월 10억 美달러화 글로벌 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바 있으며 이번 20억 달러 발행을 통해 국내 외화유동성 공급 및 대외신인도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특히, 이번 포스코의 가산금리는 올해 해외 채권발행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의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될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소매·유통업체 체감경기 '악화' 전망…2분기 연속 침체

1분기 소매유통업경기전망지수 '75' 기준치 하회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지역 기업들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올 1분기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체감경기 전망이 먹구름이다.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지역 47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75'로 기준치(100)를 하회하며 체감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명절특수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겨울방학과 계절적 영향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내수침체, 물가·금리 상승 등에 따른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 Retail Business Survey Index)는 유통업체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을 뜻한다.

경영항목별로는 매출·수익 항목(75)은 물가상승에 따른 수익감소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전망치가 하락했다.

고용항목(96)은 근무시간 축소 및 인원 감축, 퇴직자 미충원에 따른 자연감소 등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용 항목(128)은 구조조정 및 관리비용 축소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150)는 명절 및 신학기 특수와 온라인 매출의 지속적인 증가 기대로 체감경기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백화점(55)은 동절기 고가제품 판매 확대 및 명절특수 등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망치가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의점(64)은 무인 점포 확산과 편의점 간 경쟁 심화 등으로 경기가 호전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마켓(45)은 물가상승에 따른 수익감소, 편의점과 대형마트와의 경쟁 심화로 매출이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올해 더욱 강화해야 할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는 '인건비·운영비 등 비용절감(48.9%)', '온라인 사업강화(31.9)', '프로모션 강화(25.5%)', '점포 리뉴얼(12.8%)', '상품개발(8.5%)', '배송경쟁력강화(8.5%)', '오프라인 출점(4.3%)', '유통 신기술 도입(2.1%)' 순으로 응답했다.

/권형안 기자

한국산학협동硏 창립 20주년 기념식

광주은행 본점 상생마루…20주년 특별사진전도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은 20년 전 지역 기업인과 학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산학협동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단법인으로 출범해 현재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은 오는 18일 오후 5시 광주은행 본점 상생마루 대강당에서 창립 2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20주년 행사는 회원과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의 '내일이 빛나는 기회의 도시 광주를 향해'를 주제로 한 특강에 이어 연구원 경과 보고, 유공자 시상, 축하공연, 만찬 순으로 진행된다.

동구 대인동 문화공간 '김냇과'에서는 지난 20년간의 활동 사진들을 선보이는 20주년 특별사진전이 이날부터 2월 26일까지 열린다.

/권형안 기자

작년 손상화폐 2조6천억 에베레스트 15배 높이

지난해 손상화폐 규모가 2조6000억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22년 중 손상화폐 폐기 규모'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4억1268만장으로, 전년(4억352만장) 대비 915만장(2.3%) 증가했다. 규모는 2조6414억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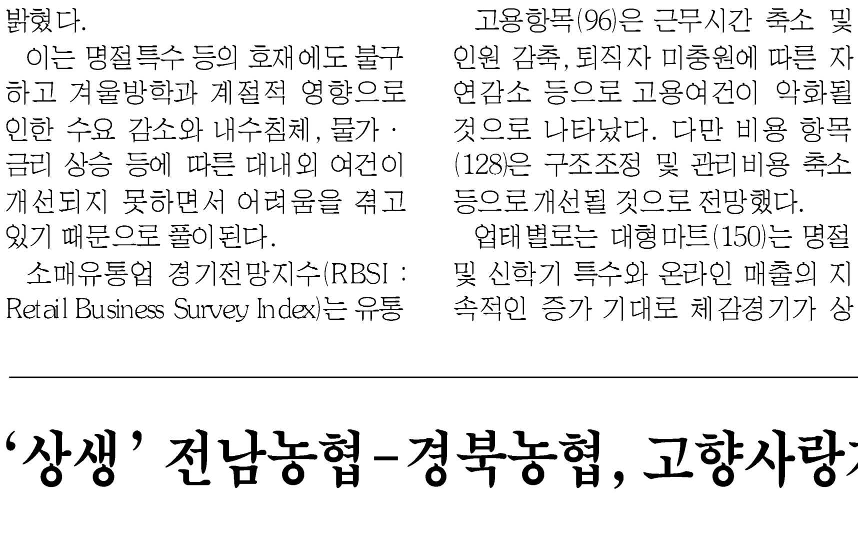
이들 화폐를 모두 연결하면 경부고속도로를 63회 왕복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위로 쌓으면 에베레스트산 높이(8849m)의 15배, 국내 최고층 건물인 롯데월드타워(556m)의 241배 수준이다.

이 중 은행권(지폐) 폐기량은 3억5671만장으로 금액만 2조6333억원에 달했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이 19억6300만장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어 1000원권이 12억9200만장(36.2%), 5000원권 2260만장(6.3%), 5만원권 8600만장(2.4%) 순으로 집계됐다.

주화(동전) 폐기량은 5596만개며 금액은 82억원이다. 주화는 10원화가 1940만개로 가장 많은 비중(34.7%)를 차지했고 100원화가 1890만개(33.8%) 등으로 나타났다.

'상생' 전남농협-경북농협, 고향사랑기부금 교차 기부

영호남 상생·화합…기부문화 전국 확산·붐 조성



전남농협과 경북농협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교차 기부하며 상생을 다졌다.

전남 농협은 17일 농협은행 전남영업부에서 영·호남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경북농협과 상호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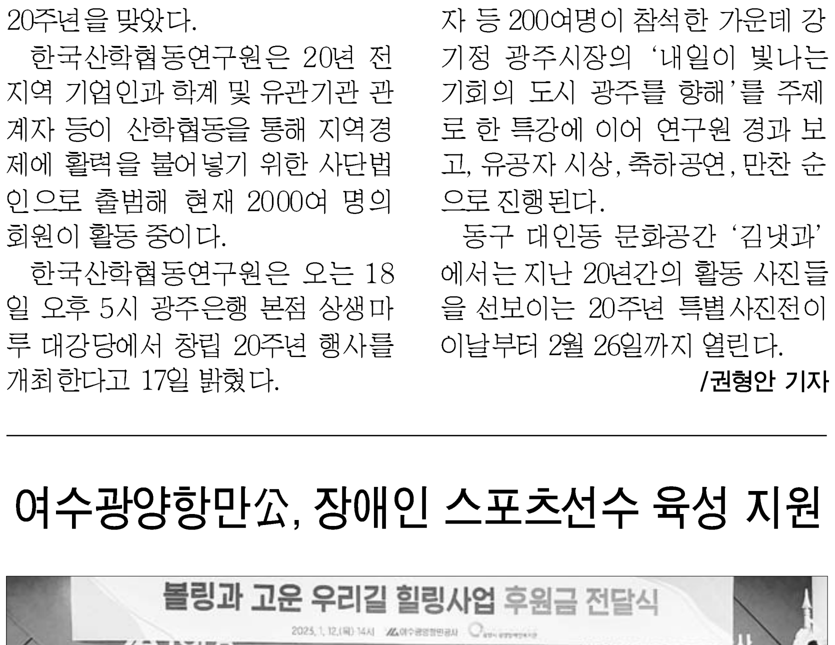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부문화의 전국적인 확산과 붐 조성을 도모해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방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기부금 납부를 할 수 있다.

박종탁 본부장은 "전남농협과 경북농협은 매년 영호남 상생장터 등 꾸준히 화합하고 있으며, 이번 고향사랑기부를 계기로 협력 관계가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여수광양항만公, 장애인 스포츠선수 육성 지원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장애인 볼링선수 육성 및 장애인과의 소통·교류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는 월드마린센터에서 박성현 사장을 비롯해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이영재 관장을 비롯한 임직원, 광양시 대표 장애인 볼링선수 4명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YGPA는 2020년부터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포스코 1% 나눔재단과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 볼링선수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다.

/광양=조순익 기자